

공선옥 소설 '꽃같은 시절' 연극·마당극 동시 제작



소설 '꽃같은 시절'을 무대에 올리는 푸른 연극마을의 배우 이담금, 원작자 공선옥, 신명의 연출가 박강의(왼쪽부터)씨가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맛은 달라요”

공선옥의 소설은 팔팔 살아숨쉬다.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인물들이 책장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특히 질펀한 전라도 사투리는 책을 읽는 도중 한번씩 소리 내 따라 해 보게 만든다. 공선옥의 소설 '꽃같은 시절'이 연극과 마당극으로 동시에 제작중이다. '꽃같은 시절'은 지난 2009년 담양군 쇠석공장 '할매들의 싸움'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할머니들이 '날것' 그대로 뱉어내는 전라도 사투리에 실린 인생사(史)는 신산하면서도 해학적이다.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28일 광주문화회관 공연에 이어

▲박=신명은 당시 할머니들 싸움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다. 할매들에게 노래 가르쳐 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밖에 못가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단원인 지정남이 초기 각색을 하고 단원들이 전체회의를 하며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연극과 마당극이라 색깔이나 장르가 다르니까 오히려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공=솔직히 내가 양쪽에 작품을 주고도겠다는 생각을 못했었다.(웃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친하게 지내는 푸른연극마을에는 내 작품 가져다 언제든지 연극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했었다.

가 배창희씨가 만들고 있다. -작품을 만들면서 힘든 점은 뭐가 ▲이=이 작품의 묘미가 전라도 사투리인데 젊은 배우들이 많다보니 사투리를 가르치는 게 참 힘들다. 신명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라 좀 부럽다. ▲박=노인 연기는 우리가 자신 있다.(웃음) 나부터도 입단하자마자 할머니 역할을 맡았었다. 우리는 정예부대 8명이 한다. 한 사람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여러개의 배역을 함께 맡는다. 이게 또 재미다. 전라도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맛감을 살리고 싶다. ▲공=내 소설에 없는 애드립이 많으면 좋겠다. 연재할 당시 매수 제한이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없애고 그랬다. 사투리 연기를 걱정하는데 작품 배경과 정서를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연기도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있다면 되지 않을까. '꽃같은 시절'을 쓰면서 시위현장에 많이 갔었는데 할머니들이 재밌는 게 자신들 싸움의 대상인 불광장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작 공선옥 “소설 읽고 맛깔나는 애드립 많았으면”
연출 박강의 “질펀한 사투리로 푼 어매들의 삶 백미”
배우 이담금 “첫장면은 산자와 망자의 화전놀이”

4월 중 장기 공연을 진행하며 놀이패 신명은 오는 4월 12~13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공연을 갖는다. 똑같은 재료를 썬 두 단체가 어떤 음식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소설가 공선옥(51), 푸른연극마을의 배우 이담금(46), 신명의 연출가 박강의(49)씨에게 만남을 청했다. 지난 15일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세 사람은 친분이 있던 터라 유쾌하게 이야기를 끌어갔다. -이 소설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 같은 작품을 무대에 올릴지는 몰랐을 테고. ▲이=2010년 창비에 연재될 당시 재미있게 읽었다. 특히 할머니들 취조 장면에서는 계속 킁킁거리며 남편(푸른연극마을 오성완 대표)에게도 한번 물어보라고 했었다. 지난날 좀 신명도 이 작품을 공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일이 다르니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장편소설이라 털어내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각색 작업을 했다. 특히 첫 장면이 공금이다. ▲박=싸움 내용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매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 요즘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땅과 함께 살아낸 어매들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인생이야기가 이 작품의 백미다. 우리는 첫 장면이 장례식이다. 슬프고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따뜻한 것을 풀어주는 것 같은 의미가 강하다. 여기서 '꽃시절 타령'이라는 걸 부르는데, 광주시립극단단 윤진철 단장이 곡을 만들고 있다. ▲이=워낙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을 부각시키면 저 사람이 서운하고 이 사람을 앞세우면 또 저 사람이 서운하고 그렇다. 첫 장면은 책의 중반쯤 등장하는 화전놀이다. 흐드러지게 꽃피 봄날에 살아 있는자, 세상을 떠난 자 함께 모여 노는 거지.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다. 우리 작품에도 노래가 나온다. 작곡

-원작자로서 이것만큼 꼭 실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공=그런 거 전혀 없다. 소설을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다. 예전에 TV에서 내 소설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을 드라마로 만들어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꼭 남의 작품 보는 것처럼 봐지더라. 소설은 잊어버려도 된다.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다 자기 것이다. 가서 관적으로 감상만 하면 될 것 같다. 공작가는 신작 소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창비)를 4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다. "글을 쓸 때 수십년 회고를 하는 스타일이라 '꽃같은 시절'은 창비에 연재하면서 애를 먹었다. 이번 신작은 잡지에 연재하지 않고 썼다. 책 속 인물중 '담금'이라는 이름도 등장한다. 이 작품도 푸른연극마을과 신명이 '똑같이' 무대에 올려도 좋을 것 같다(웃음) 아주 레퍼토리화 시키자."(웃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럽 5대 왕실 잔혹사

광주출신 미술사가 이연식씨 '잔혹한 왕과...' 번역

왕실은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다. 왕실에서도 왕비는 가장 화려한 자리다. 왕비라고 하면 화려한 궁정, 매일같이 열리는 파티, 번쩍이는 보석 장식, 호화로운 드레스, 신하들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왕비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그들의 생활은 화려하기만 할까? 광주 출신의 미술사가 이연식씨가 '무서운 그림' 시리즈의 저자 나카노 코코가 펴낸 '잔혹한 왕과, 가련한 왕비'를 번역했다. 이 책은 유럽 5대 왕실의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남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알콩달콩한 사랑이야기 대신, 제목처럼 잔혹한 왕과 가련한 왕비만이 등장한다.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경쟁, 벨라스케스의



명작 '리스 메니사' 속 귀여운 공주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짧은 생애, 영국의 왕이 된 조지 1세가 자신의 왕비를 평생 유배시킨 이야기 그리고 헨리 8세와 처형당한 왕비 앤 불린 등을 통해 왕실이 잔혹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씨는 서울대 미술대학(서양화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저서로는 '아트 파탈' '미술 영화 거들떠 보고서'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 등이 있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의 장남이기도 하다. /김경민기자 kki@

움트는 희망 '민들레의 노래'

황토제,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한마당'

국악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이왕재)가 광주시 서구가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1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민들레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실내악합주 '플라이 투 더 스카이'로 문을 연다. 이어 베이스 기타와 실내악이 어우러진 '비나리', 소금과 거문고 어우러진 '봄을 여는 소리'와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연주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한 겨울 추위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은 민들레의 모습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는 '민들레의 노래'다. 해금, 첼로, 피아노와 베이스 기타, 그리고 실내의 합주가 어우러진 곡이다.



이어 소리꾼 전지혜양이 '봄물에 배 띄워', '나영 나영'을 부르며 황토제 10주년 기념곡인 '비상'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9212-54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뮤지컬로

보성 출신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뮤지컬로 만들어진다. 공연 제작사 신시컴퍼니(대표 박명성)는 '아리랑'을 대형 뮤지컬로 제작해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선보일 예정이다. '아리랑'에는 총 제작비 약 60억원을 투입되며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본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박 대표는 "제작을 구상하며 뉴 웨일즈의 '아리랑' 등 다른 내용도 검토했지만 실록의 역사를 우리네 말로 질펀하게 표현한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세계 수준의 무대 메카니즘을 도



입해 외국에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하소설 '아리랑'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일보에서 연재된 후 12권의 책으로 출간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한민족의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eneung's Best Seller series, featuring books like '한자능력검정시험' and '한자능력검정' with various educational benefits listed.